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호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반이기흥 단일화 무산 6파전...투표율투표시간 등 주요 변수로

‘반이기흥’ 군웅할거...‘체육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전포인트

이동섭 일요신문 기자

[한겨레-체육시민연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공개 질의]

“2036 올림픽 유치” “스포츠공정위 개선”...‘체육 대통령’ 노리는 6명

장필수 한겨레 기자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후보 6명, 핵심 발언 정리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선발인권"

[인터뷰] 박창범 선대위원장 "체육회장은 청렴한 사람이 돼야"

박홍식 뉴시스 기자

구청 체육센터에 사람 몰리자 일부선 타구민 제외 등 이용 제한

[토요칼럼] 동네 체육센터의 1초컷 신청 마감

안재광 한경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체육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연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퍼지고,
체육을 통해 소통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체육시민연대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체육,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체육시민연대

‘반이기흥’ 군웅할거... ‘체육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전포인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후보 6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진다. 2024년 체육계 논란 중심에 서 왔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선거 판세를 둘러싼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선거 특유의 ‘선거 방식’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24년 말까지 3선 도전과 관련, 침묵을 이어왔다. 2024년 11월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회장 3선 연임안을 의결할 때까지도 이 회장은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12월 23일 이 회장은 3선 도전 의지를 본격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경찰, 국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거의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대한체육회 조사에 나섰다”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전방위 압박에 굴복하고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아 (3선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이었다.

체육계 안팎에선 예정된 수순에 따른 출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3선 도전은 필연적인 시나리오였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회장이 노리던 ‘대정부 투사’ 명분이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까지 갖춰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기흥 대 반 이기흥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짜인 상태로 선거전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 회장 3선을 저지하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주자는 총 5명이다.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탁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반 이기흥 전선’에서 각자 깃발을 들어 올렸다.

2021년 치러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4자 구도로 치러진 바 있다. ‘반 이기흥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에 반대하는 표가 분산됐다. 이 회장은 46.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유준상 전 새누리당 상임고문 등 정치권 인사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각각 3위와 4위에 머무르며 고배를 마셨다. 2위는 25.7% 득표율을 기록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차지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반 이기흥 전선’은 단일대오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 단일화 노력이 있긴 했다. 두 차례에 걸쳐 단일화 추진 회동이 이뤄졌다. 12월 17일 결성된 1차 회동엔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모였다.

12월 22일엔 2차회동이 있었다. 이날 회동엔 유승민 전 회장이 빠지고,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참가했다. 두 차례에 걸친 단일화 회동은 아무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단일화를 촉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각개전투 의지를 표명했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사이에서만 단일화가 성사됐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고, 박창범 전 회장은 강신욱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른바 ‘스몰 텐트’ 단일화다.

지난 선거보다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반 이기흥 전선’ 결집력에 대한 의문 부호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6자 구도 판세는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과 ‘반 이기흥 주자’ 5명의 대결로 압축됐다. 반 이기흥 전선에선 3명이 유력 주자, 2명이 다크호스로 꼽힌다.

다음 장 계속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3명은 유승민 강태선 강신욱 후보다. 김용주 오주영 후보는 다크호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탁구 선수 출신인 유승민 후보는 '젊은 패기'를 앞세우고 있고, 기업인 강태선 후보는 '노련함'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 경험과 '스몰 텐트' 단일화를 통한 명분 확보를 기반으로 막판 스퍼트에 나설 전망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유승민 후보는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와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서 "수직적인 문화가 만연한 체육계에서 '젊은 피'인 유승민 후보가 얼마나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강태선 후보의 경우 현직 지자체 체육회장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한 득표력이 강점"이라면서 "전국단위 선거에서 얼마만큼 세를 결집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바라봤다. 그는 "강신욱 후보의 경우 선거 경력자로서 전국 각지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잘 다져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다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측면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2024년이 시끄럽지 않았느냐"면서 "직무정지 상태인 이기흥 회장이 각종 이슈를 딛고 얼마만큼 지지세를 사수하는지 여부가 선거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종목단체에서 이 회장에 대한 비토기류가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면서도 "현직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관측했다.

변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꼽힌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300여 명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 마음을 얻는 후보가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반 이기흥 전선'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맥을 잘 짚은 후보가 이기흥 회장과 표 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단 투표 양상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누구의 지지세가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고 했다. 그는 "이기흥 회장이 여러 리스크를 안고 3선에 도전했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훨씬 치열할 것"이라면서 "한 표 한 표가 굉장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본다"고 했다.

투표율도 중요한 변수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월 1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다. 전국 투표소는 이곳 하나다. 투표 시간으로 2시간 30분 정도가 주어질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자체 체육회 일각에선 '보편적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선거인단이나 경기 스케줄이 한창인 동계 종목 관련 선거인단은 투표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6자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30% 득표율을 선점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기흥 회장이 득표율 30%를 사수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면서 "'반 이기흥 전선'에서 30% 득표율을 얻는 후보가 나타난다면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2036 올림픽 유치” “스포츠공정위 개선” ... ‘체육 대통령’ 노리는 6명

연간 보조금 약 4200억원을 움직이는 체육 대통령이 14일 대한체육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이기흥, 김용주, 유승민, 강태선, 오주영, 강신욱)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가능성에 체육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논의됐지만, 실패로 돌아가 모든 후보가 선거를 완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 선출되는 대한체육회장은 임기 4년간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쓰며 전문 운동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을 즐기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에 한겨레와 체육시민연대는 후보 6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각 후보의 정책역량을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국제 스포츠 경쟁력 △체육 행정 △재정 건전화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문항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입장을 추렸다.

다수 후보, 회장 연임 심사 스포츠공정위 “개선해야”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문체부는 체육회의 각종 사업을 놓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했지만, 이 회장은 체육계 자율권을 강조해 양쪽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던 중 국무조정실 정부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해 11월 조사를 통해 일부 직원 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즉시 이 회장을 직무 정지했다.

3선 도전을 앞둔 이 회장에게 이는 치명타가 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공정위)는 작년 11월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승인했다.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집중 조사와 수사를 받는 후보가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자, 체육계에서는 스포츠공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보 6명 중 4명(김용주, 유승민, 강태선, 강신욱)은 현 스포츠공정위가 회장 연임 심의를 더는 맡아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용주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원을 축소하고, 대한체육회장의 경우 3연임제 자체를 금지해 심의 대상 안건이 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신욱 후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회장의 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이기흥 후보는 현 제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도 문체부 협의를 통하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가)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주영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심의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임기를 분리하고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후보 5명 “문체부의 종목단체 예산 직접 교부 반대”

지난해 7월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급되는 종목 및 지방 체육회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엘리트 스포츠 위기를 극복하고 각 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회의 ‘경기단체 사업과 활동 지원 역할’을 보장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조처가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 계속

오주영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 모두 체육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문체부의 직접 교부 방식에 반대했다. 유승민 후보는 “문체부는 체육 전문 조직이 아니다. 예산을 받는 조직은 집행 기관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주 후보는 “조직과 체계의 파괴로 체육계의 분란 극대화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오주영 후보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언급하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종목단체가 문체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게 되면, 자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이 강화되고 대한체육회의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을 향한 종목단체장들의 과도한 줄서기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된다”고 내다봤다.

수업결손보단 훈련이 먼저...한목소리

학생 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을 위해 정규 수업을 이수할 수 없을 때는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일정 범위(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내에서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를 놓고 체육 현장과 교육 현장의 인식 차는 크다. 현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시스템에서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체육 지도자 입장에서는 출석 인정 허용일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휴일과 조퇴 등 쪼개기로 이미 실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결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확대는 사실상 수업 결손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6명 모두 출석 인정 허용일수 제도를 손봐 훈련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 후보는 “출석 인정 허용일수 자체가 선수 인권 침해이다. 학생 선수는 ‘학생’보다는 ‘선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현 교육부 규정에는 이런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생 선수의 시합이나 훈련 참여 등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김용주), “출석 인정 허용일수 확대와 함께 학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학습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오주영), “학생 선수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운동 여건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강태선) 등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을 냈다.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의지...남북 교류는 엇갈려

6명 후보 모두 2036 서울올림픽 유치에 뛰어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림픽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기흥 후보와 김용주 후보는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올림픽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2036 서울올림픽 유치는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국민 통합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유승민, 강태선, 오주영 후보는 국내 체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기로 올림픽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태선 후보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부족한 전문체육 인프라 구축과 잉여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체육회의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어 올림픽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영 후보 역시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해 비용 절감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지속 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북체육 교류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세대별로 답변이 엇갈렸다. 이기흥(69), 김용주(63), 강태선(75), 강신욱(68) 등 60대 이상의 후보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핵심 종목으로는 축구, 탁구, 태권도, 농구 등을 꼽았다. 반면 유승민(42), 오주영(39) 등 30~40대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유 후보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일방적인 교류로 한국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해야 한다. 큰 틀에서 교류는 찬성하나, 선불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오주영 후보 역시 “비용 문제와 실질적인 효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공개질의서를 살펴본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표를 모으는 데 방해가 될까 우려한 것인지 일부 논쟁이 되는 질의를 놓고선 대세만을 따르거나 일반론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면서도 “체육회장은 대한민국 체육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발표한 공약과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후보 6명, 핵심 발언 정리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4일 열렸다. 후보 6명은 체육계 현실에 상황 인식, 주요 공약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기홍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강태선 현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6명이 모두 참석했다. 발언은 기호 순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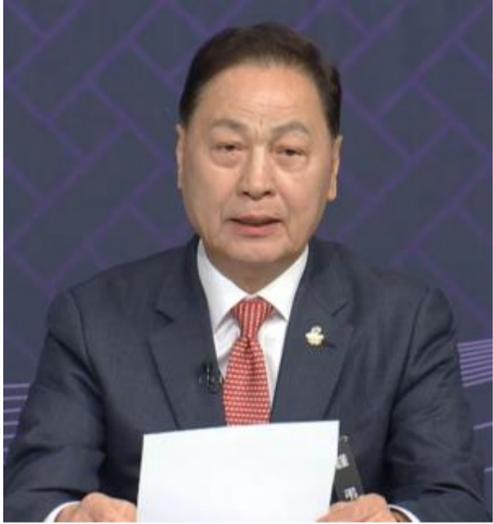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이기홍 : 온전한 자치를 이루려면 12개 부처 등에 산재된 정책을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해 원시스템으로 시행해야 한다. 2016년 대한체육회 예산이 200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억원에 육박한다. 2800명 계약직 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체육회 예산이 늘어도 현상이 어려운 것은 정부 간섭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기금을 직접 교부하려하지만 정산문제로 다시 체육회로 돌아올 것이다. 독립(Independence), 최적화(Optimization), 협력(Collaboration)을 국가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이끌어내겠다.



■“체육청 설립, 체육청 설립” 김용주 : 체육인공제회, 보조금법 개정, 지방체육회 예산 안정적 확보, 회장 업무 추진비 확보, 체육단체 직원 확충, 교육세를 체육 예산으로 환원 등은 체육청 설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체육청 설립이 관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행정과 재정은 체육청이 하고 실무는 체육회가 하면 된다. 지금은 구조적 문제, 행정적 한계를 넘을 때다. 체육계 혁신에 앞장서겠다.



■“체육회 예산 증대에 올인” 유승민 : 공약 7개를 이루려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K스포츠 콘텐츠로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으로 돈을 벌듯 체육회도 전국체전 등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선수촌 등 체육회 자산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확대하겠다. 내가 탁구협회장 시절 100억원이 넘는 후원사를 유치했다 모든 탁구인들이 함께 한 것이다. 에이전트가 후원사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15~20%를 줘야 한다. 협회 임원에게 후원 욕구를 독려한 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체육에 빚진 게 많다. 빚을 갚을 때다. 35년 동안 경험한 걸을 모두 쏟아내겠다.



■“경영인이 체육회장을 맡을 때” 강태선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데 집중하겠다. 서울시 관내 구체육회 중에도 지도자 임금제를 호봉제로 전환한 곳이 있다. 새해 25개 구 모두 호봉제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 일은 직원이 하는 것이다. 회장이 일하면 독선이 된다. 회장은 전략을 짜고 뒷받침하면 된다. 경영인으로서 체육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권력 대신 리더십, 사욕 대신 봉사 정신이 필요한 때다. 4년을 8년처럼 일하고, 체육회 두 배로 키우겠다. 조직을 운영해 성공해본 경험을 앞세워 체육회를 최고 서비스 조직으로 만들겠다.



■“지도자, 선수 투표권 확대가 체육 개혁 첫걸음” 오주영 :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괴물이 된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거수 표결,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미치는 회장 영향력부터 사라져야 한다. 대한체육회 적폐 청산이 최고 공약이다. 지도자 처우 개선과 생계 보장은 선거권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내가 회장이 되면 현재 2300명인 대한체육회 선거인단을 2만3000명으로 늘리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 나는 체육인도 아니고 체육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 체육에 빚진 게 없어 위기에서 체육을 구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진짜 개혁을 하겠다.



■“학교체육활동, 대입 가산점 반영” 강신욱 : 국민체육진흥법을 고쳐 지방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독립되도록 하겠다. 열악한 학교 운동부 지원, 상장 기업 운동부 창단 의무화, 학교체육 활성화 등도 모두 학교체육활동을 대입에 반영하면 해결된다. 최저학력제, 운동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 이슈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준비가 덜 돼 고통스럽다면 폐지돼야 맞다. 사람은 고쳐서 못쓴다. 살아온 길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체육회의 모든 회의록, 공모사업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회장 전횡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자료 출처: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1041641003?pt=nv>

[인터뷰] 박창범 선대위원장 "체육회장은 청렴한 사람이 돼야"

강신욱(단국대 명예교수)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창범(56) 전 대한우슈협회장은 5일 "혼돈에 빠진 한국 체육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강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했던 박 선대위원장은 강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최근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체육회장은 청렴, 도덕성, 공정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끝까지 체육회장에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기흥 현 회장이 다시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단식까지 했던 제 입장에서 솔선수범하고 양보하고 희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중 후보에서 가장 괜찮은 후보가 '강신욱 후보'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창범 상임선대위원장과와의 일문일답.

--청렴 도덕적,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강신욱 후보로 전격 단일화한 이유는 지금 이기흥 현 회장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권력 사유화, 비위, 불공정 등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공정한 분을 수장으로 모셔야 한다. 도덕성이 선결 조건이자 기본이다. 기본을 갖춰야 그 후의 체육 정책을 고민할 가치가 있다. 선결 조건에서 탈락한 분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대한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강신욱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강신욱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강 후보는 지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2위라는 성적표를 거뒀다. 선거 당시 코로나 유행이 극심했던 터라, 선거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인품만큼의 득표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본다. 41대 회장 선거에서 낙선 후에도 체육인들을 만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역에 대한 현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눈으로 보고, 귀를 열어 들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한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준비된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4년간 준비한 뒷이야기를 접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분이 저보다 낫겠다는 판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후보단일화를 했다.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마디.

"많은 후보가 재정적인 지원에만 몰두한다. 사실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체육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이다. 양궁협회가 그 사례다. 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회장은 재정지원만으로 대한민국 양궁 신화를 만들지 않았다. 신화의 밑바탕에는 공정함이 있었다. 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은 공정함 그 자체다. 학연, 지연, 파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값보다 실력 하나만을 본다. 전국 1500명의 수 중 랭킹 100위 안에 들어야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수 있다. 100명의 선수가 10번의 대회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하고 치열하게 시합으로 평가한다. 모든 국민이 양궁 국가대표에 유명 스타가 선발되지 않더라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당연히 우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다.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공정한 후보가 체육회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강신욱 후보'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한 말씀.

"끝까지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했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했다. 강 후보와 후보단일화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강 후보가 원팀으로 선거에서 이길 때까지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끝까지 같이 하자 제안에 고심했고, 도덕적이고 준비된 강신욱 후보의 제안을 수용했다. 저는 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후보와 힘을 합쳐 대한체육회에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을 올리겠다"

[토요칼럼] 동네 체육센터의 1초컷 신청 마감

한경일보
안재광 기자 2025.01.03

운동하라는 말을 다들 쉽게 하지만 막상 쉬운 일은 아니다. 동네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부터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집 근처에 구청이 출연한 문화체육센터가 있다. 이곳은 매월 25일이면 신규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온라인 신청은 '1초컷'으로 마감된다. 현장 접수 대기줄은 새벽 2~3시부터 생긴다. 좋은 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을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이 센터가 내놓은 처방은 '이용 제한'이었다. 우선 구민 이외 주민은 후순위로 밀어내 사실상 구민만 신청을 받아줬다. 그럼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번엔 1년 이후 재등록을 막았다. 오랜 기간 센터를 이용한 '고인물'을 밀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일부 수업에 한해 1인당 두 개 이상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게 했다. 월·수·금요일 수영 프로그램을 들으면 화·목요일 프로그램은 수강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처방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운동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운동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하니 시설을 더 늘리지 않고서는 방도가 없다. 하지만 체육센터 설립은 먼일이고 민원은 눈앞의 일이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건 근본 해결책이 향후 계획에도 없다는 점이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까는 예산은 있어도, 민원이 빗발치는 체육센터 확장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다. 이는 비단 우리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금과 예산을 체육센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예산을 담당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한 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체육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사소하거나 뒷전으로 밀릴 일이 아니다. 국민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사회 난제와도 같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료로 한 해 약 100조원을 걷어서 쓴다. 지금까지 대체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았다. 하지만 조만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게 분명하다. 저출생·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돈을 더 걷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도 너무 많이 낸다고 아우성인 국민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긴 어려울 테니, 덜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체육센터 확대는 건강보험료를 덜 쓰는 데 힘을 실어준다. 체육센터를 동네마다 더 세워 보다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건강 증진에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2013~2017년 5년간 '국민체력100' 참여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비참가자보다 연간 40만원가량 의료비를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력100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다. 단순 계산으로 100만 명이 참여한다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 건강보험 수지 적자 규모 3072억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노인은 주 1회 이상 30분간 걷기만 해도 의료비 지출을 연 12만5000원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금만 운동해도 효과가 커서 운동에 따른 '가성비'는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인에게 병원을 덜 가라고 눈치를 주는 대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득이란 얘기다. 실제 동네 체육센터에서 접해본 수많은 노인은 '건강미'를 뽐내며 집 앞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해했다. 한겨울에도 민소매 차림으로 헬스하는 등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노인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이 많아질수록 노화로 인한 질병과 장애 시간이 단축되고 의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최근 의학계에 줄을 잇는다. 여기에 더해 운동은 노년의 자아 만족감을 높이고 사람 간 교류를 활성화해 고독감을 줄여주는 등 심리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요즘은 한겨울인데도 공원만 가면 무리 지어 뛰는 사람 천지다. 이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뛰는 사람이 많을수록, 운동하는 사람이 늘수록 사회에는 훨씬 득이 된다. 새해에 운동을 다짐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집 근처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시설·청사 신축 등 지역 사업, 지자체가 직접 심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50800530?input=1195m>

양산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개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1791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본격 추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1&news_seq_no=5085867

대전 체육 꿈나무, 겨울 훈련으로 더 높이 날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318>

전국 유소년 생활 체육 농구대회 팡파르 '초등 600명 집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77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106025607

대한체육회, 전북서 2036하계올림픽 실사...김관영 지사 직접 PPT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117000055?input=1195m>

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반이기흥' 예상 밖 차분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6747>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제주서 개막...15일까지 진행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86700056?input=1195m>

동해시,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추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0600041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